

유럽예술 특유의 '보는 방식' 분석 「映像커뮤니케이션과 사회」

—한양대 姜明求교수

지금 번역중

“현대사회에서 광고산업이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는 메시지는 단 한마디 말로 요약됩니다. 즉, 당신도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는가’라는 유희이죠.”

그런데 광고와 서양의 전통누드화를 비교해 보면 일정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姜明求교수(35·한양대 신문방송학과)는 설명한다. 그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책은 영국의 예술史家 존 버거의 「A Way of Seeing」(Sage社刊).

“그것은 그림 속 여자모델들의 시선이 한결같이 바깥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것이 여성을 사유물화·쾌락의 도구화했던 서양문화가 낳은, 분열된 여성自我의 표현이라 분석합니다.”

여성들은 걸어갈 때나 심지어 울 때조차 타인을 의식한다는 말이 있다. 서양여성에게겐 본래의 자아 외에 ‘바라다보이는 모습’으로서의 대상화된 자아가 병존해 있고, 그 시선은 현실 속의 자기 ‘주인(lord)’ 또는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과의 인격적 연속 관계를 반영한다는 얘기가.

“이것은 아시아·아프리카 미술에선 볼 수 없는 유럽 미술의 특징이죠. 가령 인도의 옛그림을 보면 노골적인 성교장면이 나오는데도 전혀 외설스럽지 않고 그 시선들이 서로에게 몰두해 있어요.”

이러한 시선의 특징은 흔히 자신의 에인이나 점을 모델로 등장시켰던 누드화의 소유자와 그 모델간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일 뿐더러, 서양油畫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보는 방식(way of

seeing)’의 특징이라는 게 이 책의 요지다.

하나의 보는 방식으로서의 ‘perspective(시각·전망)’는 보는 사람의 눈에 모든 것의 중심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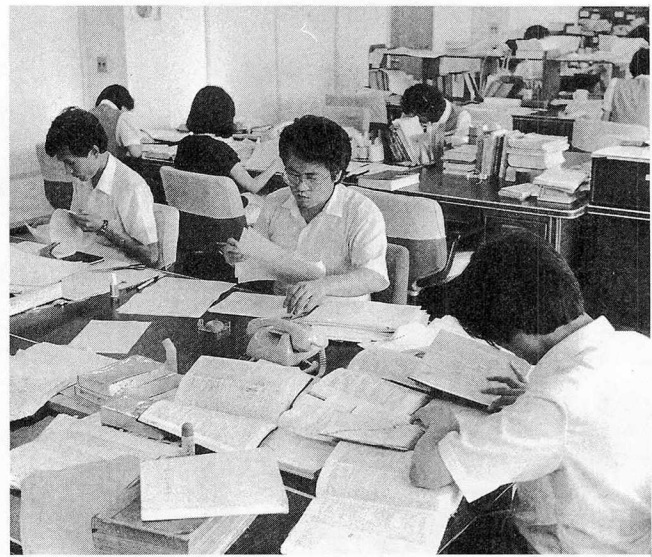
“‘전망’이라는 방식에는 시선의 주고받음이 없어요. 이는 마치 神이 다른 사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듯이 자기중심적인 시선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한 장소, 한 순간에만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의 눈으로 모든 현실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모순은 사진기의 발명에 의해 분명하게 드러났다. 더 이상 하나의 시선에 의해 대상이 파악될 수 없으며, 서양식의 ‘시각’이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깨달음은 예컨대 입체주의의 실험으로 이어졌다.

“이 책을 일관해 흐르는 것은 예술의 민주화에 대한 저자의 신념이지요. 그것은 공간적으로는 서구의 자기중심적 예술기준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複製수단 등의 발명이 가능케 한 예술의 대중화현상을 시대착오적으로 부정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원저자 버거가 크게 힘입고 있는 프랑크푸르트학과 월터 벤야민의 예술론은 잘못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고 姜교수는 지적한다.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작품의 고유성(Aura)이 파괴되었다는 벤야민의 분석은 옛문화에의 향수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예술이 呪術의 신비화에서 벗어나 대중적 정보로 공유될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역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책 역시, 각 장 사이에 많은 분량의 그림을 삽입하여 저자가 제기한 문제를 독자 스스로 판단하게끔 배려하고 있다.



7만 단어에 풍부한 시각자료 「옥스퍼드 英韓사전」 준비

—(주)三省出版社

지금 제작중

시중에 나온 한 콘사이스 英韓사전에서 ‘family’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다.

① 家口(양친과 그의 자녀, 하인도 포함하여)
② 가족, 일가, (일가의)아이들 ③ 종족, 민족 ④ 一族, 가문 ⑤ 語族, (動·植)科.
이 풀이는 낱말의 用例를 거의 망라하여 일견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family가 원래 ‘家口’를 가리키는 말에서 유추작용에 의해 그 외연이 확대돼 왔음을 짐작케 할 뿐, 語源과 말의 변천과정이 누락돼 있어 서양가족제도의 역사적 성격을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family는 노예를 뜻하는 familus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말이다. 이는 서양 전근대의 가족이 노예소유관계와 다를 바 없는 가부장적 질서 속에 있었음을 반영하는 동시에 가족제도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외국의 언어를 배우는 일은 낱말뜻의 파악에서부터 그 나라의 문화와 대면케 된다. 따라서 외국의 문화 수용은 외국어사전의 편찬에서부터 본격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 삼성출판사에서는 영국 옥스퍼드대학 출판국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풍부한 내용의 영한사전을 준비중에 있다.

“이 사전은 1세기의 역사를 가진 옥스퍼드 출판국이 펴낸 ‘The New Oxford Illustrated Dictionary’(NOID)를 원전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전의 불충분한 부분을 가필·첨삭하고 사진·도판도 대폭 바꾸는 등 단순한 번역사전을 넘어서 독자적인 사전으로

꾸며지죠.”

3년전부터 편집에 착수해, 올 12월에는 발간할 예정이라는데 白聖基편집실장(45)의 설명이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옥스퍼드 영어사전, 통칭 OED가 처음 나온 것은 100여년 전. 언어순화를 목적으로 선택된 어휘만 실었던 과거의 사전들과 달리 모든 언어를 수록하고자 했던 OED는 12세기 이래 오늘날까지 영어의 변천과정을 정밀하게 기술한 점이 자랑이다. NOID는 OED를 바탕으로 인명·지명·동식물명·전문용어 등을 수록하고 풍부한 시각자료를 곁들여 辭典(dictionary)이자 事典(encyclopedia)의 성격도 겸비하고 있다. 이를 텍스트로 하여 꾸며지는 「삼성 옥스퍼드 영한사전」 역시, 7만 단어와 사진도판 3500컷, 국배판 2천여 쪽의 규모.

“이 사전의 장점이라면 語源풀이와 백과사전적 설명, 시각자료가 적절히 배합돼 풀이의 정확성과 입체성을 기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필요할 때만 찾아보는 단어집이 아니라, 항상 곁에 두고 참조할 만한 英美문화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각계 전문가 45명의 감수와 옥스퍼드대학 출판국의 英文교열을 받고 李炫馥교수(서울대 어학연구소장)가 편집교열의 책임을 맡았는데, 국어사전의 어휘 정리가 아직 미흡한 마당에 이 사전 역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했노라고 白국장은 자부한다.